

# A2001 채권형(연금)

##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채권형(연금)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 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채권형(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4703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05.25
운용기간	2021.01.01 ~ 2021.03.31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이득과 이자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 (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채권형(연금)	자산 총액 (A)	3,361	3,040	-9.55
	부채 총액 (B)	3	3	-4.69
	순자산총액 (C=A-B)	3,358	3,037	-9.56
	발행 수익증권 총수 (D)	2,147	1,968	-8.37
	기준가격 (E=C/D × 1000)	1,563.92	1,543.57	-1.30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에 입금(예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2021년 1분기 채권시장은 미국 추가 재정부양책 및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정상화 기대감, 경기 회복 국면 가속에 따른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및 국내 저성장 우려를 포함한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수급 약화 우려 등이 혼재되며 대내외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분기 초 미국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며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이후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내놓으며 미국의 성장 전망 경로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 따른 중앙은행의 조기 긴축 가능성 우려가 높아지며 미국 트러저리를 중심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국내의 경우 1분기 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정부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및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논의가 이뤄지면서 수급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3월 중 잇따른 단기 국제 입찰 과정에서 소화 부담 및 헤지 물량 영향으로 단기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국내 기관들의 손절 매도세가 나오며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한은은 국제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시장 안정책을 내놓았으나 역시 되돌림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금리는 국고 10년물 기준, 전분기말 대비 +33.5bp 상승한 2.057%에 마감하였습니다.

###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된 경기 부양책 효과가 발현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의 회복 기조는 더욱 견조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 수출 확대에 이어져 2분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요 회복과 함께 글로벌 공급체인의 병목 심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연준의 고압경제 기조를 감안하면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이 용인되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장기 금리의 상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명목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실질금리가 변동하고 있는 점은 향후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국내 성장 및 물가 전망도 상향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적었던 국내 경제의 완만한 회복 속도를 고려하면 대외금리 대비 추가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고간 장기 금리의 텀 프리미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약화는 경기 회복에 따른 추가 재정부양책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국내 정책 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국제 매입 확대,

국제 발행 만기 조정 등의 안정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향후 장기 구간의 금리 상단을 제약해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채권 금리는 10년물 기준 1.85~2.15%를 예상합니다. 2분기 중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점진적인 비중 확대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월 조정 장세에서 유동성이 높은 상위 등급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위등급 대비 스프레드가 다소 과도하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구간의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이후 하위등급 내 우량 종목과의 교체 매매를 통해 YTM을 제고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채권형(연금)	-1.30	-2.44	-2.53	-1.83
(비교지수 대비 성과)	(-0.24)	(-0.53)	(-1.07)	(-1.57)
비교지수(벤치마크)	-1.06	-1.91	-1.46	-0.26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T-1) X 95% + CALL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채권형(연금)	-1.83	-0.23	2.22	1.53
(비교지수 대비 성과)	(-1.57)	(-2.67)	(-4.15)	(-7.03)
비교지수(벤치마크)	-0.26	2.44	6.37	8.56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T-1) X 95% + CALL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0	0	0	-30	0	0	0	0	0	0	-9	-39
당기	0	0	0	-33	0	0	0	0	0	0	-9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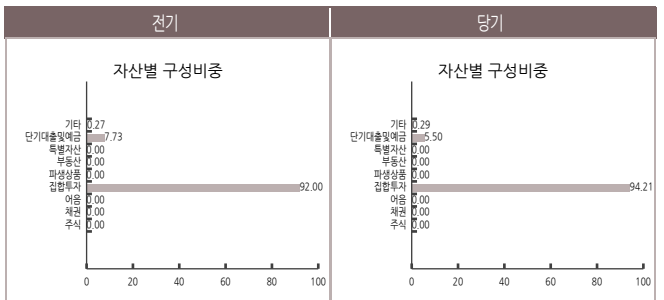
##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2,864	0	0	0	0	0	167	9	3,040
(1.00)	(0.00)	(0.00)	(0.00)	(94.21)	(0.00)	(0.00)	(0.00)	(0.00)	(0.00)	(5.50)	(0.29)	(100.00)
합계	0	0	0	2,864	0	0	0	0	0	167	9	3,040

※ ( ): 구성비중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증권(채권)	94.21	6		
2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5.50	7		
3				8		
4				9		
5				10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미래에셋벤처투자증권(채권)	채권형	2,921	2,864	대한민국	KRW	94.21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167	0.23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2	81	2,597,437	-	-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9	81	2,597,437	-	-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8	81	2,597,437	-	-	2119000109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c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2021.03.23	최영혁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3	0.10	3	0.1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4	0.11	3	0.11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648	0.0004	0.4652
당기	0.4488	0.0004	0.4492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채권형(연금)'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 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